

집단감염 막자... '사회적 거리두기' 동참 늘어간다

북부경찰 형사 사무실 근무 자체
금호타이어 사무직 재택근무
관공서 민원실 아크릴 가림막
회식 금지에 한쪽 방향 식사도
코로나19 극복 적극 참여 필요

◇다양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도=공직
사회와 지역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
사회적 거리 두기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
다.

광주시 북구의 경우 민원실에 아크릴
가림막을 설치, 민원인과 공무원 간 거리
를 유지토록 했다. '비말' (飛沫)로 이뤄지
는 코로나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'사
회적 거리두기' 조치다.

사회적 거리두기란 사람들 접촉과 이동
을 최대한 줄여 코로나19의 추가적 지역
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것으로, 일정 거리
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.

김대중컨벤션센터는 대면 접촉을 피하
기 위해 SNS메신저와 단체방을 활용, 회
의와 보고를 진행하고 있다.

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코로나19 확
산을 막기 위해 회식 자제 지침을 내린 상
태다. 금호타이어는 개사 이래 최초로 재
택근무에 들어갔다.

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재택근무와 출
장 최소화, 대면회의 자제 지침을 내렸다.
여기에 오전 11시45분부터 오후 1시 10분
까지 나눠 직원들을 분산시키고, 좌석도
지그재그 방식으로 앉아 식사하도록 했
다. 한전도 대면 보고 대신, 이메일과
SNS로 보고를 대체했다.

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우 수천명의 직원
들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공간이 부족해
일렬로 앉아 '혼밥'을 먹도록 하는 게 현실
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부서별로 시간을
쪼개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'거리두기'
를 실천하고 있다.

북구도 식사 중 얘기하다 발생할 수 있
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락 식사를
권장하고 있다.



10일 오전 광주시 북구청 세무과 민원창구 직원들이 '코로나19' 예방을 위해 설치한 투명 아크릴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민원 서류를 접수받고 있다. /최현배 기자 choi@kwangju.co.kr

정부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각
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온라인 근무, 재택
근무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실정
이다.

◇직장, 휴가권장·행사자제=직원들
에게 자발적 휴가나 가족돌봄휴가를 권장
하는 것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한 방법
이다. 건물 구조나 업무 형태상 직장 내 거리
두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경우 이같은

방법으로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
문이다.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난 뒤
근로자가 직접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
해 신청하면 된다.

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직원의 출·퇴근
시간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. 콜
센터의 경우 자칫 업무가 몰스푼 될 수 있
는 점을 감안, 분산해 배치하는 방안도 고
민해야 한다.

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
"콜센터 사례 같은 집단감염을 막기 위
해서는 근무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
켜야 한다"며 "증상이 나타날 때 자택에서
머물다가 증상의 진행에 따라 며칠을 버티
보고 그 다음에 선별진료소나 콜센터를 통
해 의료기관 검사를 받는 것이 현재로서는
가장 합리적인 과정"이라고 말했다.

/정병호 기자 jusbh@kwangju.co.kr

착한 임대료·익명 기부...광주·전남 '따뜻한 손길'

광주 임대료 인하 잇따라
전남대생 성금·응원 메시지
전남 농가도 온정 이어져
영농업체 후원물품 답지

주들의 임대료 인하로 23명의 임차인이
임대료의 20%~40%의 감면 혜택을 받고
있다.

광주시 북구 용봉동 패션의 거리에서도
3명의 임대인들이 최대 20%까지 임대료
를 인하해 받기로 했다.

전남에서도 담양군이 오는 6월까지 전
통시장 3곳의 시장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
기로 결정했다.

앞서 장흥군도 토요일을 비롯, 천관
산 관광시장과 대덕읍시장, 용산·장평·유
치·회진시장 등 7곳, 230개 점포를 대상으
로 3개월간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계획이
다.

순천시도 전통시장 사용료 50% 감면을
비롯해 3000만원까지 2년간 무이자 지

원, 지도도상가 사용료 납부 유예, 관리비
40% 감액, 상수도 요금 3개월간 50% 감
액 검토 등의 조치를 내놓았다.

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
대구·경북에 대한 지원도 잇따르고 있
다.

광주흥사단은 코로나19 확진 환자들
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회원
들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5일까지 모금
한 성금 651만5000원을 대구시에 전달
했다.

국제로타리 3710지구 회원들도 1000만
원의 성금을 모아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
에 전달했다.

전남대 학생들도 코로나19 대규모 확진
자 발생으로 고생하는 대구 경북대병원

의료진에게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5일까
지 1주일간 모인 170만원의 성금과 응원
메시지를 지난 9일 전달했다.

익명의 기부행렬도 이어져 광산구 수완
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지난 6일 '코로나19
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'는 내용의 쪽
지와 20kg짜리 쌀 20포대가 전달됐고 장
흥군 관산읍사무소에도 현금 50만원이 들
어있는 봉투가 전달됐다.

해남 영농업체 10곳과 해남군은 대구지
역 돕기위해 김치류 2500kg과 세발나물
1000kg을 비롯해 면역력을 높여주는 석
류·개복숭아 효소, 곰보배추즙, 자색양파
즙 등을 후원물품을 전달했다.

/정병호 기자 jusbh@kwangju.co.kr

마스크 매점매석
14일까지 자진신고 댄
검찰, 입건 유예 등 선처

검찰은 오는 14일까지 마스크 생산·판
매업자가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할 경우
입건을 유예하는 등 최대한 선처하기로
했다.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각급 검
찰청에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.

검찰은 정부가 이날부터 14일까지 닷새
간 운영하는 '매점매석 마스크 특별 자진
신고기간' 지침을 고려해 이런 지시를 내
렸다고 설명했다. 이는 매점매석으로 묵
인 물량을 시중에 풀기 위한 취지다.

검찰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되는
사건에 대해서는 신고 기간 내 자진신고
하지 않은 사정을 양형 및 처분에 적극적
으로 반영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
다룰 예정이다. /연합뉴스

영암 대불산단 노동자
유해물질 노출 작업복
75%가 "집에서 세탁"

영암 대불산업단지 노동자들은 각종 유
해물질에 노출된 자신의 작업복을 대부분
집에서 세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

10일 전남노동권익센터와 금속노조가
대불산단 입주업체 노동자 135명을 설문
조사한 결과, 산단 입주업체 64%가 유해
물질 취급 사업장으로 화학물질·페인트·
용접분진 등 각종 유해물질에 노동자들이
노출되고 있다.

설문조사는 작업복 세탁소·통근버스·조
식 식당 등 노동자 건강복지 실태를 알아
볼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.

작업복 관리에 대해 응답자의 75%는
집에서 작업복을 세탁한다고 답했다. 세
탁을 외부에서 한다는 응답자도 대부분
그 외부를 노동자 개인이 부담했으며 회
사 일부 부담 4%, 회사 전액 부담은 13%
에 그쳤다.

작업복 세탁을 위한 산단 노동자 공용
세탁소 건립 필요성에 80%가 긍정적으로
답했으며 응답자의 62.9%는 이용할 의
사가 있다고 답했다. 출퇴근 교통수단으로
응답자의 94%가 자가용을 이용했다.

대불산단 통근버스 운행은 전체 응답자
의 82%가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응답자의
64%는 이용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. 통근
버스 비용 부담은 응답자의 41%가 무료
운행, 29%는 1300원을, 8%는 2500원
을 제안했다.

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"유
해물질이나 중금속 등이 잔뜩 묻은 작업복
을 집으로 가져가 세탁함으로써 2차, 3차
노출이 이뤄져 가족 건강까지 침해받고 있
다"며 "통근버스 운행에서도 많은 노동자
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"고 말했다.

전남노동권익센터는 설문조사의 구체
적인 내용을 11일 전남도의회에서 발표할
다. /김형호 기자 khh@kwangju.co.kr

택시요금 가져온다면 승객 끝내...

○...경찰이 택시요금
8000원을 가져오겠다고
해놓고 그대로 사라져버
린 승객 찾기에 나서 눈길.

○...1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택시
기사 A(52)씨가 이날 새벽 1시 10분께
광주시 서구 화정동 원룸 앞에서 50대로
보이는 승객 B씨를 내려줬는데 "돈이 없
으니 집에서 가지고 오겠다"며 한 뒤 나오
지 않자 112 신고를 했다는 것.

○...경찰 관계자는 "8000원 밖에 되지
않지만 112 신고를 했고 사기 혐의가 적용
될 수 있어 원룸 앞 CCTV를 되돌려 찾아
내 혐의를 적용할 계획"이라고 설명.

/김민석 기자 mskim@kwangju.co.kr

고의사고! 허위입원! 허위청구! 과잉진료! 확대수리

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

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!

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,
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.
보험사기, 반드시 적발됩니다.

MERITZ 메리츠화재 | 한화손해보험 | 롯데손해보험 | MG손해보험 | Heungkuk Fire & Marine Insurance | 삼성화재 | 현대해상 | KB손해보험 | 동부화재 | KOREAN | SGI서울보증 | AXA | AIG | NH농협손해보험